SK, 일자리 해법·大-中企 상생방안 찾는다

오는 14일 '2023 울산포럼' 개최 청년 지역사회 정착 등 방안 논의 ESG공급망 규제 대응 등도 모색

SK그룹이 지역사회의 청년 일자리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SK그룹은 오는 14일 울산 울주군 울 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ES G, 함께 만드는 울산의 미래'를 주제로 '2023 울산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 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 는 울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지역포럼이 다. 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하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중소벤 처기업부, 울산광역시, 울산시의회, 울 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 후원한다.

포럼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김기환 울 산시의회 의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등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준 SK이노베



SK그룹 회장(가운데)이 작년 9월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처(UECO)에서 열린 '2022 울산포럼' 폐회식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션 부회장 등 SK 구성원도 참여한다.

올해 울산포럼 세부주제는 '청년행 복, 산업수도의 변화'와 '동반성장, ES G 넥스트 전략'이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공급망으로 확산되는 ESG 규제 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다.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고자 울산포럼에서는 제 조업 재도약을 위해 청년들이 지역사 회에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또 주요 수출국 에서 강화되고 있는 ESG 공급망 규제 에 대응하고, 동반성장을 하기 위한 대 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방안도 논 의할 예정이다.

특히올해는지역포럼이라는특성에 맞게 지역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적 극 반영하고자 본 포럼에 앞서 지난 3 개월간 울산시 내에서 사전 프로그램 을 진행했다. 기업 리더, 실무진, 청년 등 3개 그룹별 세미나와 인터뷰를 통해 포럼 주요 의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하고 의견을 모았다.

울산포럼은 SK그룹의 첫 지역포럼 으로, SK그룹 지식경영 플랫폼 '이천 포럼'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와 공 유하기위해지난해시작됐다. SK이노 베이션은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회사의 모태인 울산 지역의 미래에 대 한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써 SK그룹과 함께 울산포 럼을 준비했다.

SK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울산 지역 구성원과 함께 청년, 성장, ESG 등 지역이 고민하는 과제에 대한 해결 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여러 이해관계 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 다"며 "청년을 포함한 지역 전 구성원 의 행복 증진과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 에 대한 이번 논의가 지역 대전환의 시 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삼성전자서비스 'CS패널' 4기 출범

삼성전자서비스는 7일 '임직원 가족 CS패널' 4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CS패널은 삼성전자 서비스와 업계 관심 및 이해가 높은 임직원 가 족으로 구성한 자문단이다. /삼성전자서비스



SKB '에코 라이프스타일 페어' 참가

SK브로드밴드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3 에코 라이프스타일 페어'에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직원 이 SK ESG 미래관에서 Cloud X를 설명 중



이준호 안전&사업부사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이건행 경기본부장(왼쪽 다섯번째)이 관계자들 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전기안전대상 '대통령상'

혁신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공로

한국전력은페어몬트엠배서더서울 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23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시상식 에서단체부문대통령상을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전기안전대상은전기재해예방과국 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관 1곳을 선정해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행사다.

이번시상식에서는한전경기본부가 혁신적인 안전 관리체계 구축. 시민재 해 예방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 아 지난 2013년 전기안전대상 수상 이

후 10년 만에 상을 받았다.

한전은 지난해 1월부터 대국민 안전 사고 근절을 위해 현장 중심의 특별대 책을 수립하고, 전사 직원이 합심해 '직접활선 퇴출', '선(先)안전 후(後)작 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한전 경 기본부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백건의 전기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 전담조직 신설 및 안전수칙 제정, 간접활선 신자재·신공 법 개발 등 지속가능한 안전 관리체계 를 선도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효성 '줍깅' 참여… 친환경 실천 챌린지

환경보호 · 재활용 중요성 알려

효성그룹 임직원이 '자원 순환의 날'에 동참했다.

효성은 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노플라스틱 한강! 모두모아 페스티 벌'에 참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페스티벌은 9월 6일 지구 환경 보 호와 자원 재활용 중요성을 알리기 위 한 자원 순환의 날을 맞아 서울시자원 봉사센터와 미래한강본부가 함께 마련 한 자리다.

효성은 임직원 45명이 참가해 서울 시민들과 함께 친환경 실천 챌린지를 진행했다. 줍깅에 참여하고 환경 퀴즈 를 풀며 수거한 쓰레기를 분리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무 심코 지나칠 때는 한강공원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몰랐는데, 직접 줍깅 활동을 통해 쓰레기를 모아보니 생각 보다 많았다"며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차다"는 소감을 남 겼다.

한편 효성그룹은 매년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효 성첨단소재㈜는 반려해변인 인천 영종 도 용유해변에서 정기적으로 환경 정 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22년 에는 효성첨단소재와 효성화학 임직원 이 각각 마포대교 북단과 한강 반포지 구에서 줍깅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김재웅 기자 juk@



LIG넥스원-중원대, 국방산업 인재육성



펄어비스-한국전통문화대, 업무협약

펄어비스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 환)와 '문화유산 가치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펄어비스

인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수석부총장 박현석 △교무부총장 정상원 △입학부총장 구국 모 △총무부총장 김준호 △총무부총장보 오지희 스학생처장 최정한 스장학처장 권 지혜 △국제교류실장 한승미
-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권익침해 방지과장 김경희 △권익보호과장 이정연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이정애 ◇과장급 승진 △혁신행정담당관 임종필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신동진 △기획재정담 당관실 신내은 △가족정책과 이경운
-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재난관리 정책국장 김용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 육원장 최명규

LG전자 '프리즈 서울' 헤드라인 파트너 참가

올레드 TV로 故 김환기 작가 작품 선봬

LG전자가 세계적인 아트페어에 핵 심 역할을 맡았다. LG전자는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프리즈 서울 2023'에 공식 헤드라인 파트너로 참가 한다고 7일 밝혔다.

프리즈는 스위트 아트바젤과 함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행사다. 이번 서 울 행사에서도 전세계 300여개 갤러리 가참가한다.LG전자는2021년부터글 로벌 파트너로 참여해왔으며, 이번에 는 최고 권위 헤드라인 파트너로 참가 를 결정했다. 프리즈 헤드라인 파트너 는 LG전자가 처음이다.

LG전자는 올레드 TV로 고(故) 김환 기 작가 작품을 선보인다. 대표작 '어디 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를 비롯한 원화 12점과 함께 그의 작품을 새롭게 표현한 미디어아트 5점도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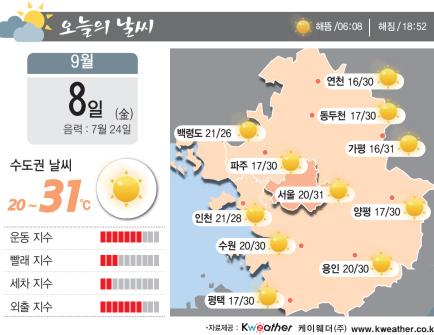
서울대 박제성 교수, 안마노 작가,



LG올레드 TV로 재현한 故 김환기 작가 작품들.

김대환 작가, 미디어아트 그룹 버스데 이(VERSEDAY) 등국내 디지털 아티 스트들도 참여했다. 김환기 작가 작품 을 초대형 LG 올레드 TV를 캔버스로 디지털로 새로 구현했다.

박제성 교수는 "스스로 빛을 내는 올레 드TV를 통해 원작의 물감 색을 빛의 색으 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 다. 김대환 작가도 "블랙을 제대로 표현하 는 올레드 TV로 원작의 완벽한 색을 그대 로 재현할 수 있었다"라며 LG 올레드 TV 의 화질을 높이 평가했다.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